

No.11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1. 30 ~ 12. 6



사단 **한일경제협회**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□ 금주의 이슈

- 디플레 시대 일본 히트상품은 ‘할인’과 ‘환경’
-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 연구 지지
- 日 기업, 엔고 특수로 해외자산 사냥
- 김연아, 도쿄 그랑프리 파이널 역전 우승
- 현대차 일본 시장에서 8년만에 철수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엔고, 디플레, 두바이 쇼크로 7조엔 규모 추경
- 日銀, 자금 공급을 위해 ‘양적 금융완화 정책’ 추진
- 日경제 내년 1.1% 성장 전망
- 경단련, 동아시아경제통합 과반수이상 지지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나오시마 경산상, 환경세 도입은 시기상조 언급
- 나오시마 경산상, 세계무역기관(WTO) 각료회의 참석
- 중소기업 지원대책, 10조엔 추경 발표
- 지구온난화대책, 합동 워킹그룹 회의 개최
- 금융기관,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출상품 판매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경산성 소관 예산심의 결과 발표, 일본경제신문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Japan Weekly Digest
(No.11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- 디플레 시대 일본 히트상품은 ‘할인’과 ‘환경’
 - 일본경제신문이 뽑은 2009년 최고 히트상품은 ‘가격 파괴 의류’(유니클로)와 하이브리드카(도요타의 프리우스) 등 ‘환경차’가 차지
 - ‘한국 관광 상품’, ‘알콜 0% 맥주풍 음료’, ‘트위터’(미니 블로그) 등도 히트
- 한국정부,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 연구 개시
 - 한국 정부가 일본, 중국과의 해저터널 건설을 장기적 검토과제로 삼아 경제적,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높이 평가
 - 이명박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가 2020년까지의 기본구상안을 발표, 한일 해저터널은 거제도와 사가현을 연결하는 코스가 유력함
- 日 기업, 엔고 특수로 해외자산 사냥
 - 엔고 현상으로 자동차, 의료 업체들을 포함한 일본 제조업체들이 해외 자산 인수 열기
 - 엔화가 달러 대비 30% 상승했던 지난 2년간에 일본 업체들의 해외 자산 인수 건수는 총 800건, 908억 달러 규모
- 현대차 일본 시장에서 8년만에 철수
 - 2001년 일본 시장 진출 이후, 현대차의 일본 판매량은 2004년 2574대를 정점으로 2005년 2295대, 2006년 1651대, 2007년 1223대로 계속 감소
 - 품질, 가격, 기술력에서 일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일본 수입차 시장에서 현대차 비중은 1%에 불과
- 김연아, 도쿄 그랑프리 파이널 역전 우승
 -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싱글대회에서 역전 우승, 일본은 김연아의 라이벌이라고 불려온 아사다 마오 대신 안도 미키가 출전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엔고, 디플레, 두바이 쇼크로 7조엔(약 91조원) 규모 추경
 -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일본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지출 4조엔에 국채발행을 통한 지방교부금 지원 3조엔 등 7조엔 투입할 것을 시사

- 日銀, 자금 공급을 위해 ‘양적 금융완화 정책’ 추진
 - 정부의 추가적인 금융완화 요구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던 일본은행이 임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디플레이션과 엔고 관련 대책을 논의
 - 일본은행은 금융시장에 풍부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 강구

- 日경제 내년 1.1% 성장 전망
 - 일본 민간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올 성장률을 -5.3%, 내년은 1.8%로 예상한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의 최근 전망에 비해 올해는 긍정적, 내년은 비관적임
 -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증대에 의한 경기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두바이 쇼크와 세계경제의 부진 등 불안 요인이 많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진단

- 경단련 소속 경영자, 동아시아경제통합 과반수이상 지지
 -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경단련 소속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에서 관세·투자 장벽 철폐 및 아시아통일화폐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
 - 미타라이 회장은 12월1일~4일간 태국, 싱가포르, 베트남 경제인들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경제 연계를 위한 전략 제시
 -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‘한중일+ASEAN’, 미국은 동남아 4개국으로 구성되는 ‘환태평양 전략적 경제파트너십(TPP)’에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본은 참여국이 많을수록 좋다는 취지에서 APEC+미국 구도를 고려
 - 아직까지 일본정부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구상이 없으므로 미국을 포함한 이미지 및 구도 구축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일본 경제계의 목소리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나오시마 경산상, 환경세 도입은 시기상조 언급
 - 간 나오토 부총리가 언급한 환경세 도입에 대해 나오시마 경산상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
 - 전기요금 인상,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등으로 산업계 및 국민 전체의 부담 가중 우려
- 나오시마 경산상, 세계무역기관(WTO) 각료회의 참석
 - 12월1일, WTO 각료회의에 참석한 나오시마 경산성 장관은 현재까지 논의되어왔던 친환경 제품의 자유화에 대한 조기합의를 동맹국에 촉구
- 나오시마 경산상,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10조엔 추경 발표
 -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보증제도의 보증한도 6조엔과 긴급대출재원 4조엔을 증액하여 총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마련 예정
-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제1회 합동 워킹그룹 회의 개최
 - 경산성과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설립된 합동 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개최, 자동차교통, 물류, 민생(주택, 건축물), 건설, 에코타운 등 5분야에서 관련부처가 수평적으로 정책 협의
- 금융기관,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출상품 판매 개시
 -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목표치 달성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해주고, 온실가스 감축 규모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친환경 대출상품 판매
 - 감축 규모는 1000t 단위로 해야 하고 대출은 최대 10억엔(약 131억원)까지 가능함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예산공개심의 결과 발표’, 일본경제신문, 2009.11.28

- 하토야마 정부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공개심의(행정쇄신회의) 진행(11/11~27), 그 결과 **450개사업 총 1조7,000억엔의 예산 삭감을 결정**
- 경산성의 예산 검토 결과, **4,227억엔으로 전체 삭감 규모의 24.8%**를 차지
 - **사업폐지: 전체(1,400억엔)의 16.8% (235.7억엔)**
 - 안심재팬 프로젝트(32억엔), 석유·천연가스 유통합리화(73.9억엔), 서비스산업 생산성향상 지원조사사업(14.8억엔), 고효율급탕기 도입촉진사업비 보조금(90억엔), 대학지원 관련시책(25억엔)
 - **사업재검토: 전체(1,300억엔)의 46.2% (599.9억엔)**
 - 저탄소사회 실현프로젝트(16억엔), 경영력향상·사업승계 등 선진적지원체제구축사업(56.9억엔), 모노즈쿠리 중소기업제품개발 지원보조금(75억엔), 주택용태양광발전 도입지원보조금(412억엔)
 - **사업예산삭감: 전체(4,000억엔)의 21.9% (876.4억엔)**
 - **30% 이상 삭감** : 콘텐츠, 생활관련산업에 대한 이벤트지원(19.2억엔), 신사업활동 촉진지원보조금(48.9억엔), 시장지향형 핸즈온지원사업(19.7억엔), 경제산업인재육성지원 연수사업(40억엔), 에너지사용합리화 사업자지원사업(258.7억엔), 신에너지 도입가속화 지원대책비보조금(388.4억엔)
 - **30% 미만 삭감**: 상가중심지활성화사업(80억엔), 동아시아 경제통합연구협력사업(10억엔), 생체기능 국제협력기반연구추진(11.5억엔)
 - **운영보조금 국고반납: 전체(1조엔)의 25.2% (2,515억엔)**
 -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 모델사업(102억엔), 국비보조연구개발(171.8억엔),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운영비(206.6억엔), 일본무역진흥기구 등의 운영비(693억엔),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(114.9억엔), 석유비축(480억엔),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운영비(614억엔),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운영비(132.7억엔)